



사이버 신행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세이클럽 '청년불교 우리사랑' 대전지역모임 9월 법회 차담시간 모습.

회원 5천명이 넘는 매머드급 인터넷 불교 동호회가 늘고 있다. 만들기 쉽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대형 포털 커뮤니티는 사이버 신행을 새로운 신행 패턴으로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이버 신행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열린 일주문으로 불심들이 모여 전개된다. 때문에 사찰을 방문해 법회를 보며 신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불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경전을 보거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특징. 온라인에서 불교를 접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사찰 정기법회, 성지순례, 수련회 등의 신행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불교 포교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잘 나가는 카페들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동호회는 다음 카페의 '나무아미타불'. 2001년 3월 개설되었지만 회원수가 1만 6천명에 육박하고 동호회 내 게시판 20개, 자료실 4개, 소모임 1개가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은 없지만 엽불과 정토신앙, 효사상 등에 대한 방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매일 게시

판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다

99년 7월 만들어진 다음 카페의 '인연'도 회원수가 1만명에 가까운 불교 동호회. 자체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회원이 원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인연소식'을 보내고 있어 다른 불교 동호회에 비해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회원이 6천명 정도인 세이클럽의 '청년 불교 우리사랑' 동호회는 2001년 3월에 개설돼 왕성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치

매머드급 동호회 비결은 '순수'

5천명 이상 온라인 불교카페 증가 바른 정보제공·활발한 소모임 '필수' 수행점검, 신행상담 전문인력 필요

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의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봉사모임인 '보현행원' 등도 회원수 5천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불교동호체로 성장하고 있다.

비결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가입과 탈퇴가 쉽다는 점이 도반을 늘려나가는 가장 큰 비결로 꼽힌다. 오프라인과 달리 동호회 일주문은 문턱이 낮아 누구나 가입해 자유롭게 글을 남기고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신심을 지향한다는 점과 방대한 콘텐츠 보유도 불자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요인.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불교 정보에 실망한 네티즌들의 불교를 바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어서다. '나무아미타불' 운영자 운수현(이 해린)씨는 "정법을 소개하고 회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사이트 활성화 비결"이라고 말한다.

동호회 내 소모임 활성화도 중요하다. 소모임을 통해 다른 회원을 알게 되고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자주 동호회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님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스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들에게 수행이나 교리 등을 지도하면 관심점이 생겨 더 많은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경남 창원외의 성불사 주지 성지스님이 운영

하는 다음의 '보현행원'의 경우 스님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등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 참석률이 높다.

함정은 없나?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주는 스님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특히 동호회 개설이 쉽다보니 불교 초심자들도 쉽게 동호회를 개설하고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불교동호회를 운영하는 많은 재가불자들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이클럽의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운영자 이상학(이태2000)씨는 "정보마인드를 갖춘 스님들이 회원들의 수행 상태나 신행상담 등을 해 주면 동호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경우, 서울 법련사 한주 지목스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건 게시판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더 선호하고 인기가 좋지만 아직까지 텍스트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어 영상매체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특별기고



박진호 디지털 복원 전문가



3D로 복원된 석불.

바미안 석불 복원 인류의 과제

지난 9월초 탈레반 잔당들이 남아 있어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1500년 전 조각된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석불을 참배했다.

바미안 석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있다. 바미안은 해발 2,500m의 힌두쿠시(Hindu-kush)산맥 가운데 형성된 분지다. 분지의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길이 1km, 안벽엔 천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석굴이 마치 별집처럼 뿔뿔이 뿔어 있다. 그 안벽의 동쪽과 서쪽 끝부분쯤에 커다란 일사구 모양의 감옥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대불입상(大佛立像)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을 최초로 다녔던 한국 사람은 신라 혜초(慧超, 704~787)스님이다. 혜초스님은 704년 신라에서 태어나 10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불학을 공부했으며, 723년 중국을 떠나 727년까지 서역과 간다라·인도·서아시아를 순례했다. 바로 727년, 24세가 되던 해 혜초스님은 바미안을 찾았다.

혜초스님은 <왕오천축국전>에서 지금의 바미안을 '범인국(狹引國)'으로 명기했는데 당시 바미안은 지금의 석불 형태가 아닌 금으로 도색된 금불상(金佛像)이었다. 53미터의 거대한 석불은 금색이 전라하게 빛을 발하였던

1500년 전 조성된 세계 최대 불상

8세기 후 반불교 세력에 의해 수난

것이다. 따라서 바미안 계곡 입구에 막 들어섰던 혜초스님은 금불으로 화려하게 빛을 발한 바미안 석불의 장엄함에 압도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정엄하게 우뚝서서 지나가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었을 바미안 석불은 슬한 반불교세력들에 의해 여러 번 파괴를 당했고, 급기야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8세기 이후 이슬람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이교도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13세기 징기스칸이 이곳을 침공하고 역시 바미안 석불에 손상을 주었다. 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석불의 얼굴 윗부분이 식빵을 찢어내듯 수직으로 잘려 나갔다. 그뿐 아니다. 17세기에는 석불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아래와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잘려나갔다. 인도 무굴제국의 황제 오랑제브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바미안 석불 재건은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파괴된 문화유산을 복원해 일찍이 문화의 황금기를 일궈낸 바미안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부과된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

지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바미안 석불을 3차원 디지털로 복원한 바 있다. 지금은 2m 크기의 거대한 바미안 석불 실물모형도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야근간 정부가 바미안 석불을 실제 복원할 때 3차원으로 복원한 자료와 2m 모형 둘 다 아프간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머지않아 3차원의 디지털로 복원된 바미안 석불을 바탕으로, 온 인류의 값진 유산인 바미안 석불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도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천년전 혜초스님의 눈으로 보았던, 인류문화의 정수였던 바미안 석불을 21세기인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다르마 팔라 탕카 센터

(http://www.bremen.de/info/nepal/)

각 주제별 탕카의 의미도 그림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탕카를 담은 시디도 판매한다.

네팔 카투만두에 위치해 있는 다르마팔라 탕카 센터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는 탕카의 의미와 역할, 제작 기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 인기를 끈다.

국내 불교미술의 명화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탕카는 근원적인 에너지, 료, 땅, 불, 공기,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하는 흑색, 남색, 황색, 적색, 녹색, 백색 등 6가지 색상으로 그려진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전화주신은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선원으로 맛보는 禪香三昧 에서 빠져드는 修行三昧

'선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발행하는 불교 월간지입니다. '선원'은 불교의 대중화·수행의 전문화·선문화의 생활화를 추구합니다. '선원'은 심층취재와 기획연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선원'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매월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선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재단법인 선학원 편집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 jaedan@kornet.net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Advertisement for 'Jaseongwan' (自生丸) joint pain relief. It includes a diagram of the human body showing joint locations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and usage. Key text: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경남 창원)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법복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1. 고급 모직: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명 (맥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면 100%(맥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맥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맥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전화: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